

## 하인두암의 치료에서 선행항암요법의 역할

원자력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김광일\* · 이용식 · 심윤상 · 이국행 · 이병철

**목 적** : 하인두암은 전체 두경부암 중에서 치료성적이 낮은 암중에 하나이며 특히 해부학적 위치 때문에 후두를 희생해야 하는 경우가 흔하다.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전에 선행항암요법을 시행하여 후두를 보존하려는 노력을 해왔는데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방 법** : 1993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조직학적으로 하인두암으로 진단받은 151명을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 과** : 환자군은 병기별로 1병기가 5명, 2병기가 20명, 3병기가 24명, 4병기가 102명이었다. 이들은 T병기 1,2군과 T병기 3,4군으로 나누어 각군의 항암요법 여부에 따라 다시 두 군으로 나누었다. T병기 1,2군에서 항암요법을 시행하지 않았거나 반응이 없었던 군에서 37명중의 15명이 치료되었고 10명이 후두를 보존하였다. T병기 1,2군이면서

항암요법을 시행한 군에서 반응이 있었던 46명중에 23명이 치료되었고 21명이 후두를 보존하였다. T병기 3,4군에서 항암요법을 시행하지 않았거나 반응이 없었던 군에서 29명중에 11명이 치료되었고 이중 2명이 후두를 보존하였다. T병기 3,4군이면서 항암요법을 시행한 군에서 반응이 있었던 39명중에 14명이 치료되었고 12명이 후두를 보존하였다.

**결 론** : 선행 항암화학요법은 생존율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으나 반응이 있는 경우 후두 보존율은 의미있게 높았다. 후두를 보존한 경우나 후두를 희생한 경우, 생존율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하인두암에서 선행 항암화학요법을 통하여 원발병소를 줄인 후 레이저로 국소절제를 하고 방사선치료 등의 방법으로 후두를 보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환자의 향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겠다.